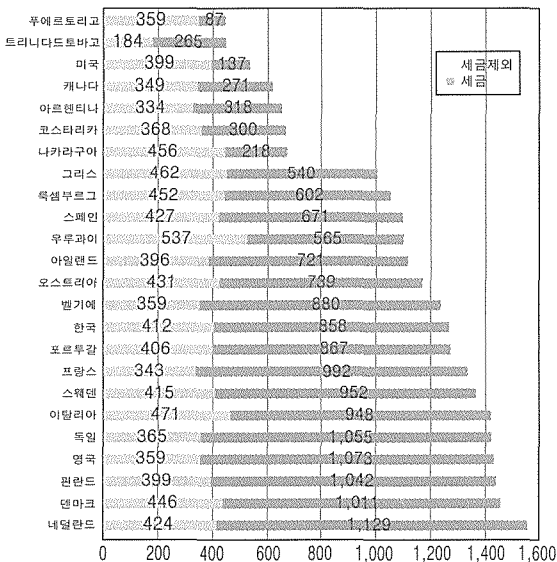


# 세계 각국의 휘발유 가격과 세금

대한석유협회 기획관리팀

미 달러화 기준으로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554원(갤런당 4.98달러)이었으며 세금은 1,129원(갤런당 3.62달러)이었다.

[그림 1] 세계 각 국가별 2003. 9월 휘발유 가격 비교  
(단위: 원/l)



[그림 1]의 그래프는 세계 각국 중 24개국의 2003년

9월 및 가장 최근의 조사된 휘발유 소비자가격(美 연방 푸에르토리코 포함)이다.

막대그래프의 숫자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중 세금 및 세금을 제외한 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리터당 446원(갤런당 1.43달러)에서 네덜란드의 1,554원(갤런당 1,554달러)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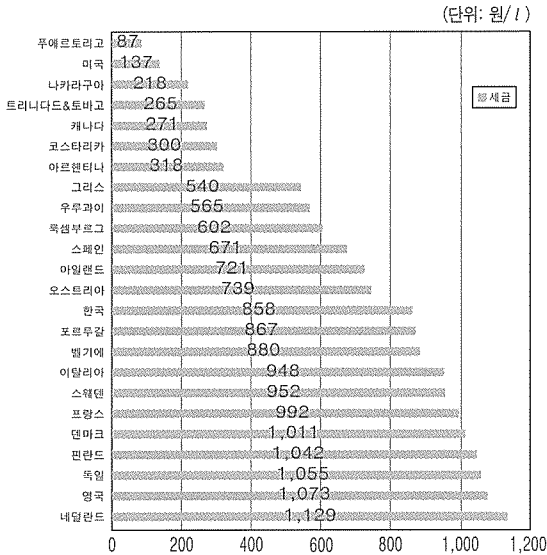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는 대체로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을 수록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높아지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세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휘발유 소비자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사실상 원유 생산량이 없는 국가이다.

영국의 가격은 이들 국가들보다 높는데 [그림 1]을 참조하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4번째로 높은 휘발유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석유 순수출국이며 수출물량이 연간 소비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

미국은 필요 원유량의 40% 가까이 자체 생산하고 있으나, 휘발유 평균소비자 가격은 세계에서 하위층에 속한다.

## 세금 제외 휘발유가격

[그림 2] 세계 각국가별 휘발유 세금 비교



[그림 2]의 그래프는 같은 국가들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부과되는 세금을 나타낸 것으로서, 푸에르토리코가 리터당 87원(갤런당 0.28달러)으로 가장 낮으며 네덜란드는 1,129원(갤런당 3.62달러)으로 가장 높다. 이들 국가중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차이는 [그림 2]에서도 뚜렷히 나타나나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전 휘발유 가격을 나타내는 [그림 1]의 막대그래프중 왼쪽은 열린 부분을 살펴 보아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세금은 리터당 624원(갤런당 2달러)정도와 같거나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로 세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소비자가격은 서로 뚜렷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대다수 국가들은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을 뺀 가격이 리터당 374원(갤런당 1.2달러)에서 468원(갤런당 1.5달러)으로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수준과 일부국가들의 경우에서 경유에 우

호적인 에너지정책의 일환인 휘발유의 세금부과, 그리고 정부의 수준높은 복지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모든 석유제품(휘발유를 포함)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로 풀이된다.

흥미롭게도 이번 조사에서 휘발유 세금이 가장 낮은 국가들중의 하나로 나타난 미국은 실제로 세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99원(갤런당 1.28달러)으로 유럽국가나 스칸디나비아 교역상대국과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세전가격은 핀란드와 같은 수준이다.

미국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지난 2002년 9월 대비 리터당 94원(갤런당 0.3달러) 올랐다. 이는 고유가와 정제마진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2년 7월과 2003년 9월 기간동안에 유로화는 미달러화보다 12.4% 절상되었다. 이러한 유로화의 강세로 미달러화 기준 독일 휘발유가격이 폭등하여 독일 운전자들은 2002년 7월보다 리터당 215원(갤런당 0.69달러)을 더 지불하고 있다. 독일의 환율인 유로화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한 리터당 46원(갤런당 0.13유로)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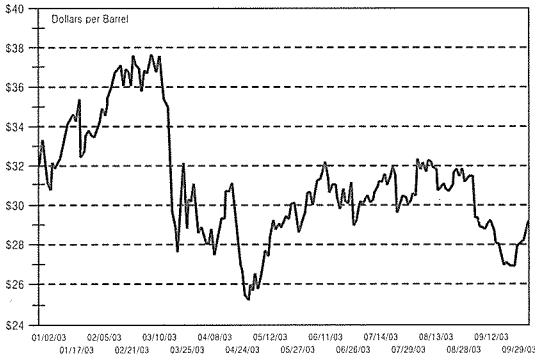
영국의 경우는 독일처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1년간 리터당 160원 가량(갤런당 0.34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원유 - 휘발유 가격의 직접적인 결정요소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국가별 휘발유 소비자 가격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반면, 원유가격 추이는 휘발유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늘날에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정부가 석유산업 자유화와 시장 자유경쟁을 위해서 오랜 기간동안 가격조사를 하지 않은채 내버려둔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외부적인 가격 영향(주로 원유가격)에 민감해졌다.

[그림 3]의 그래프는 올해 NYMEX(뉴욕상품거래소)의 WTI경질유의 선물거래가격 일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WTI원유 선물일별 가격추이 (2003. 1. 2 ~ 9. 30)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유가격은 지난 2003년 3월 7일에 37.78달러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어 4월 29일 25.20달러로 바닥을 쳤다. 6월 11일에 32.28달러로 회복한 후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9월 22일의 26.93달러의 저점 이후 며칠간 적당한 회복이 따르렀다.

4/4분기가 도래함에 따라 겨울철 성수기로 인해 세계 원유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계절적 조건과 아울러 석유소비증가와 세계경제 회복이 뒤따르며, 만약 OPEC의 감산폭이 비OPEC국가의 계획된 생산이나 특히 아직 전쟁전 수준에 비해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는 이라크 보다 더 크지 않다면 가격은 점차 강세를 떨 수 있다.

항상 그래왔듯이 원유가격은 세계 각국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가별로도 차별화가 이루어져 어떤 나라들은 더 빠른 속도로 유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데탕트誌 2003. 9월호 참조〉

